

##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김 위 정\*

### 초 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사회참여의식, 공동체적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종3때 시민성 수준을 모형에 포함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완화하였으며, 변수간의 시차를 이용하여 인과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로를 발견하였다. 첫째, 부모의 SES는 가족관계와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매개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족관계는 직접적으로, 또 학교활동이나 교사·교우관계,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경험은 직접적으로, 또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민성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학교경험과 비교하여 가정환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지적·수용적 가족관계와 친밀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우관계, 비교과 학교활동이 시민성 발달에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으며, 학교경험이 시민성 발달을 촉진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효과를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시민성, 사회참여의식, 공동체의식, 가정환경, 학교활동

\* 한국교육개발원 위촉직 연구원

## I. 들어가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민성(citizenship)-민주적 가치와 태도라고 명시된-의 함양은 주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러한 시민성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가령, 다양한 문화와 가치,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다문화·다양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통하여 상생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갈등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성의 핵심적 요인들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민의 사회 참여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청소년은 주요 대상 중 하나였다(허인숙·이정현, 2004: 444). 최근 여러 국가들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개혁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나 공동체 참여, 대인관계, 협동, 시민성 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김기현 외, 2009).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시민성 수준은 낮은 편이다. 김기현 외(2010)가 PISA와 ICCS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비교한 결과,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지식 수준은 평균정도이지만, 관계지향성(신뢰)과 사회적 협력(참여)에서 모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ICCS 2009년도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학생들의 교내외 시민참여는 최하위권에 속했으며, 미래 정치활동에 대해서 낮은 참여 의도를 보였다(김태준 외, 2010). 이는 무엇보다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지적 능력이 시민성을 위시한 비인지적 능력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주로 지식위주 교육이며, 약간의 학교가 특별수업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허인숙·이정현, 2004: 445).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지식수준은 낮지 않지만 이것이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영역에서의 발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시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기이다.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의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가 시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성인기의 시민참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Youniss & Yates, 1999)이라는 데 동의한다. 대인관계나 갈등해결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규범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Zaff et al., 2008)하기 때문이다. 사회 참여와 상관없는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에의 참여도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aff et al., 2003).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교내외의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교사나 교우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시민성 형성에 일정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가족간 유대와 가족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연구들은 대체로 청소년의 교내외의 단체 활동이 성인기의 사회참여나 시민의식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대체로 방법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이용교·이중섭, 2010; Zaff & Michelsen, 2001). 또한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민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학교경험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 II. 기존문헌 검토

### 1. 시민성의 개념과 측정

시민성(citizenship)<sup>1)</sup>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며,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것이 경험분석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참여 의식, 공동체 의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시민성 개념에 대한 몇몇 연구<sup>2)</sup>들을 살펴보면, 시민성 개념 정의의 몇 가지 특징

1) 시티즌십은 대개 시민권 또는 시민성으로 번역된다.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시민의 권리라는 한정된 의미만 갖는 데 반해 실제 시티즌십은 시민의 권리 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적 지위의 법률적 표현’, ‘시민이 갖춰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최현, 2007), 여기에서는 시민성으로 번역하였다.

2) 김왕근(1995); 상탈 무페(2003); 송현정(2003); 최현(2007)

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지위 또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관련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이라는 지위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 권리를 의미 하며, 셋째는 종종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의식과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최현(2007: 165)은 이에 대해서 시민성의 차원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국 적, 또는 국적을 가진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라는 제도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시 민의 정치적 의식, 시민의 공적 활동 참여 또는 시민의 정치적 역량이라는 시민의 자 질과 관련된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도 시민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받아들여서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민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 의식과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개인의 시민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상 시민으로서의 권 리와 의무라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인의 지식이나 의식, 태도 및 행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Dec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그램과 IEA 시민교육 연구에서도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 요소로 지식 및 개념 이해, 기술(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 태도, 행위를 제시한다 (김태준 외, 2010). 국내 청소년 시민성 형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은 대개 태도나 의식의 측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이라는 한계상 사회에 직접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측면보다는 태도나 의식의 형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듯하다. 그 내용은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법 치준수, 역사인식, 정치적 참여, 인권의식, 효능감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관용의식,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등이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이용 교·이중섭, 2010: 208-209). 관용의식(개방성)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 관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신과 태도,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는 상대방의 존 재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허인숙·이정현, 2004). 공동체 의식이란 공동체에 대한 귀 속의식과 구성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에 도덕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식과 태도를 의미하고, 참여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 을 말한다(김원태, 2001).

## 2.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과정

가정과 학교, 문화나 정치적 환경과 같은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모는 역할 모델로 작용하여 자녀에게 시민 참여의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거나 자녀들의 참여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Zaff & Michelsen, 2001; Fletcher et al., 2000). 부모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는 자녀들의 사회 참여와 상관이 있으며(Fletcher et al., 2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족의 윤리가 자녀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미래 헌신과 상관이 있는 것(Flanagan et al., 1998)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이나 종교적 헌신을 배우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 시민 참여의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는 것이다(Fletcher et al., 2000).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도 청소년의 비교과 활동 참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letcher et al., 2000; Hart et al., 1999).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장려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재능을 지원하고 활동 참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Csikszentmihalyi et al., 1993). 따뜻하고 수용적인 부모들은 자녀의 욕구를 잘 인지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준 외, 2010; Schulz et al., 2010),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시민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aff et al., 2008). 따라서 가족내 시민성의 측면에서 자원이 풍부할수록, 부모가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시민성이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양육방식 뿐 아니라 가족간 유대도 사회화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Wentzel & McNamara, 1999). 가족간 유대는 상호 지원, 일반적 상호의존성, 감정적 친밀성 등을 포착하는데,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는 더 넓은 범위의 대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가족내 관계에서 이타적인 행동방식과 책임감 등의 긍정적 가치를 습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가족간 유대가 높다고 보고한 아이들은 타인을 보살피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더 많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Romig & Bakken, 1992).

긍정적인 동료관계도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동료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동료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

다(Wentzel & McNamara, 1999; Zaff et al., 2003). 즉, 친밀한 동료관계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갈등을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맥락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간 유대와 마찬가지로 동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일반적 사회 관계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큰 사회참여로 발전할 수 있다. 경험연구 결과, 친구와의 관계가 민주적이거나(김원태, 2001; 천희완, 1999), 친구집단의 사회참여정도가 높을수록(허인숙·이정현, 2004) 시민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학생 관계와 시민성 형성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학문적 효과를 가진다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Cunha et al., 2006), 시민성에 대한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Zaff 등(2008)의 연구결과, 교사 또는 가정교사와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는 미래 사회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외의 단체 활동도 시민성 증진에 효과 있다. 많은 연구들이 교내외 사회 참여 활동 또는 스포츠나 문화예술 동아리와 같은 비사회 참여 활동 모두 성인의 사회 참여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한다(Nolin et al., 1997; Smith, 1999; Glanville, 1999; Youniss et al., 1999; Zaff et al., 2003). 국내 연구에서도 학교활동(클럽, 학급, 학생회)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학교활동의 민주성이 시민성 형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원태, 2001; 허인숙·이정현, 2004), 고등학교의 특별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수록 민주적 정치태도가 증가하였다(천희완, 1999). 또한 학생들의 학생회 참여나 건의, 항의, 캠페인 등의 투표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가나, 2001), 학교에서 시민참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외, 2010). 반면에 학급토론의 개방성 수준과 학교평균 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시민지식과 미래투표 의도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김태준, 2010), 이는 지식과 행동(또는 태도)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방과후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도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정서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정영란, 2008). 김현주·정영란(2008)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 협동활동, 놀이활동, 학습활동, 생활지도 활동 등 다양한 활동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특히, 수용적 지도방식과 친밀한 관계형성이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활동 참여가 조직화된 집합적 활동의 규범과 일상에 학생들을 노출시킴(Youniss et al., 1997)으로써, 또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Zaff et al., 2008) 사회참여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용교·이중섭(2010)에 따르면 사회참여 활동은 친사회성과 사회적 신뢰를 매개로 시민성을 향상시키는데, 즉, 사회참여활동은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의 크기도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학생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비교과 활동과 시민성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내생성은 계수의 편의를 가져온다.

요약하자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구성된 사회적 맥락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로 사회적 기술의 향상과 규범과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보유한 자원과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방식 등이, 학교 내에서는 친밀하고 지원적인 동료 관계와 동아리나 특별활동, 학생회와 같은 비교과 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III.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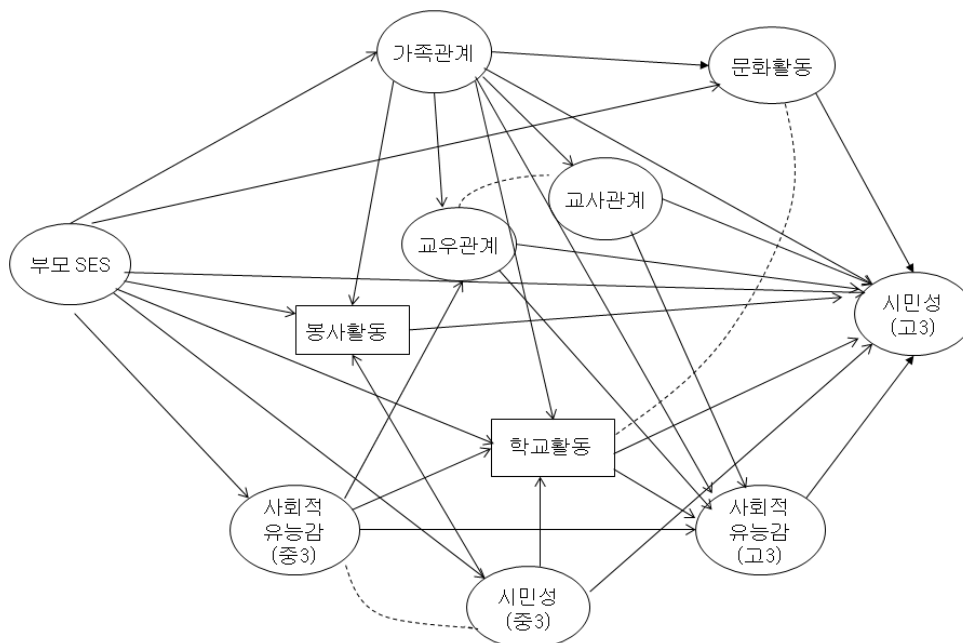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기존문헌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가족과 학교경험이 시민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몇 가지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직접적으로, 또는 가족관계와 문화 활동을 매개로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관계는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활동을 매개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학교활동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up>3)</sup>. 이는 아래

3) 사회적 유능감 외에도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이나 신뢰도 매개변수로 가능하나, 자료의 한계상 사회적 유능감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단,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제외하였다.

[그림 1]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점선은 잠재변인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시민성의 하위차원을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하위차원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시민성이 구성개념이라는 점, 다양한 매개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 및 변수의 설정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고3학생들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의 모집단은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며, 2005년도에 총 150개 중학교 6,908명을 시작으로 하여,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인지·비인지 발달 등에 대해 매년 추적 조사해왔다.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설문도 포함하여, 학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6차년도에는 학생의 경우 원 표본대비 조사성공률이 76.2%



로, 총 5,264명의 학생이 표본에 포함되었다.

시민성은 고3 시기의 사회참여의식, 공동체 의식으로 측정하였다. 학교경험과 문화 활동과 같은 주요한 매개변인들은 고등학교 시기의 경험으로 한정하였으며, 과거 중3 때 시민성과 사회적 유능감을 모형에 포함하여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개별 잠재변수 및 관찰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참여의식(중3/고3)

참여의식에 대해서 3차년도와 6차년도에 4개 문항(나는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듣는다/어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해 모두 측정변인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0.714$ ,  $0.691$ ).

### 2) 공동체 의식(중3/고3)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3차년도와 6차년도에 4개 문항(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공동체의 발전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해 모두 측정변인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0.657$ ,  $\alpha=0.611$ ).

### 3) 사회적 유능감(중3/고3)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서는 3차년도와 6차년도에 5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나는 단체생활을 잘한다/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두해 모두 측정변인간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0.874$ ,  $\alpha=0.812$ ).

#### 4) 부모의 SES

고1, 2, 3 때 가구소득의 평균을 로그전환한 값, 중2때 부의 직업지위, 부와 모의 교육년수 중 더 높은 값(1차년도 자료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 5) 가족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나를 격려하신다', '내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 문항의 고1,2,3 평균값, 6차년도(고3) 가족 자아개념('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문항의 평균값, 허용적 양육태도('부모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하신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부모님은 나의 조금만 행동에도 칭찬을 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내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들어주시고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와주신다') 1차년도 문항의 평균값, 이렇게 3개의 측정값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인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 = 0.680$ ).

#### 6) 문화활동

고1, 고2 때 독서시간(0-10시간)의 평균값과 고1때 문화활동 관련 문항 '영화나 비디오를 본다', '미술관, 박물관에 간다', '고전음악회, 오페라 공연에 간다', '대중 가수 콘서트에 간다', '연극, 뮤지컬을 관람한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 '전통음악, 민속 공연에 간다' 이렇게 8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인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 = 0.621$ ).

## 7) 교사관계

5차년도(고2)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6가지 문항(‘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하신다’, ‘선생님은 학생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신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신다’)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인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0.867$ ).

## 8) 교우관계

5차년도(고2) 교내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4가지 문항(‘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사이가 좋다’,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인간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alpha=0.841$ ).

## 9) 학교활동

학교활동에는 교내외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을 포함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4차년도(고1)때 한번 측정되었으며, 학생회 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은 4, 5, 6차 모두 측정되었다<sup>4)</sup>. 동아리 활동은 교내 동아리와 교외 동아리, 온라인 동호회 활동 여부로 측정되었으며, 개별 동아리 참여 여부의 합산으로 측정되어 0부터 3의 값을 갖는다. 학생회 활동과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은 고1, 2, 3학년 때 학생회 활동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매년의 값을 합산하여 0부터 3의 값을 갖는다. 학교활동 변수는 각 활동 참여 여부의 합산으로 측정하였으며, 0부터 9의 값을 갖는다.

## 10) 봉사활동 시간

고등학교 기간 동안 총 봉사활동 시간이며, 담임교사의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4) 6차년도에는 학생회 활동 문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학생회 회장 또는 부회장, 학생회 부장, 학급회장(반장) 또는 부회장 중 하나라도 활동하였으면 있음으로 코딩하였다.

### 3. 기술통계

연구대상은 고3학생들이지만, 과거 종단연구 자료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으며, 1-6차년도 자료를 전부 이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은 사례수는 3,694명이다.

<표 1> 변인별 문항과 평균, 표준편차

(N=3694)

| 잠재변인               | 측정변인    | 평균    | 표준<br>편차 | 잠재변인               | 측정변인    | 평균    | 표준<br>편차 |
|--------------------|---------|-------|----------|--------------------|---------|-------|----------|
| 사회참여<br>의식<br>(중3) | y3s3_1  | 3.05  | 1.01     | 사회참여<br>의식<br>(고3) | s18_9   | 3.36  | 0.89     |
|                    | y3s3_2  | 3.86  | 0.92     |                    | s18_10  | 4.07  | 0.86     |
|                    | y3s3_3  | 3.12  | 0.89     |                    | s18_11  | 3.26  | 0.89     |
|                    | y3s3_4  | 3.77  | 0.91     |                    | s18_12  | 3.72  | 0.92     |
| 공동체<br>의식<br>(중3)  | y3s3_5  | 3.37  | 0.81     | 공동체<br>의식<br>(고3)  | s18_5   | 3.31  | 0.81     |
|                    | y3s3_6  | 3.92  | 0.84     |                    | s18_6   | 4.04  | 0.77     |
|                    | y3s3_7  | 3.71  | 0.80     |                    | s18_7   | 3.72  | 0.76     |
|                    | y3s3_8  | 3.30  | 0.86     |                    | s18_8   | 3.31  | 0.85     |
| 사회적<br>유능감(중3<br>) | y3s2_1  | 4.11  | 0.82     | 사회적<br>유능감<br>(고3) | s17_1   | 4.09  | 0.79     |
|                    | y3s2_2  | 3.87  | 0.77     |                    | s17_2   | 3.90  | 0.73     |
|                    | y3s2_3  | 3.68  | 0.86     |                    | s17_3   | 3.71  | 0.85     |
|                    | y3s2_4  | 4.04  | 0.79     |                    | s17_4   | 4.00  | 0.77     |
|                    | y3s2_5  | 3.86  | 0.76     |                    | s17_5   | 3.95  | 0.70     |
| 교사관계               | y5s5_5  | 2.86  | 0.88     | 교우관계               | y5s5_11 | 3.87  | 0.74     |
|                    | y5s5_6  | 3.06  | 0.89     |                    | y5s5_12 | 3.79  | 0.77     |
|                    | y5s5_7  | 2.87  | 0.91     |                    | y5s5_13 | 3.68  | 0.74     |
|                    | y5s5_8  | 2.94  | 0.88     |                    | y5s5_14 | 3.90  | 0.74     |
|                    | y5s5_9  | 2.95  | 0.83     | 봉사활동<br>문화활동       | 봉사활동시간  | 57.10 | 39.56    |
|                    | y5s5_10 | 3.09  | 0.88     |                    | s28_1   | 3.92  | 1.34     |
| 학교활동               | 학교활동    | 1.94  | 1.57     |                    | s28_2   | 1.73  | 0.85     |
| 부모 SES             | 가구소득    | 5.73  | 0.73     |                    | s28_3   | 1.47  | 0.75     |
|                    | 부직업지위   | 44.18 | 13.68    |                    | s28_4   | 1.39  | 0.73     |
|                    | 부모교육년수  | 13.53 | 2.42     |                    | s28_5   | 1.43  | 0.74     |
| 가족관계               | 양육태도    | 3.64  | 0.78     |                    | s28_6   | 1.84  | 1.27     |
|                    | 정서적 지원  | 3.55  | 0.75     |                    | s28_7   | 1.24  | 0.60     |
|                    | 가족자아개념  | 3.71  | 0.79     |                    | 독서시간    | 1.95  | 1.88     |

## IV. 분석결과

### 1. 구조방정식 결과

우선,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 모두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chi^2$  지수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chi^2$  값의 경우 표본크기나 측정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LI와 CFI는 모두 0.9 이상이며, RMSEA는 0.05 이하 값을 갖기 때문에,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 모형의 적합도 검증

|        | $\chi^2$ | df  | TLI   | CFI   | RMSEA |
|--------|----------|-----|-------|-------|-------|
| 사회참여의식 | 5,708.4  | 864 | 0.910 | 0.917 | 0.039 |
| 공동체의식  | 5,085.5  | 864 | 0.918 | 0.925 | 0.036 |

구조방정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먼저, 사회참여의식에 대해서 부모의 SES는 가족관계, 문화활동, 봉사활동, 과거 유능감(중3)과 과거 참여의식(중3)을 매개로 현재의 참여의식(고3)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수준이 높으며 이는 참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중3때의 참여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통제하면 부모의 SES 수준이 고3때의 참여의식 수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SES와 참여의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능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즉, SES가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유능감이나 참여의식 수준이 높다기보다 가족간 유대나 문화활동과 같은 경험을 통하여 유능감이나 참여의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족관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문화활동이나 교사·교우관계, 학교활동,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문화활동과 학교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교사, 교우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아, 가족관계는 이러한 요인들을 매개로 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 관계와 교우관계는 직접적으로 고3의 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유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가설에 부합하게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사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활동 변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켜 참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도 직접적으로 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나 학생회, 방과후 특기적성,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로가 나타난다. 먼저, 부모의 SES가 가족관계나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매개로 시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긍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에 더 자주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참여의식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중3때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통제하면 부모의 SES 수준이 고3때의 공동체의식 수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SES와 공동체의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관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문화활동이나 학교활동, 교사·교우관계를 매개로,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적·수용적 가족관계는 문화활동과 학교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교사와 교우관계를 증진시키며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친밀하고 수용적인 교우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은데, 직접적으로는 공동체의식 향상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유능감에는 부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활동의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접적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은 직접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형의 모수추정치

|            | 사회참여의식    |       |        | 공동체의식     |       |        |
|------------|-----------|-------|--------|-----------|-------|--------|
|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  |
| ses->시민성3※ | 0.012***  | 0.001 | 0.192  | 0.005***  | 0.001 | 0.118  |
| ses->가족관계  | 0.006***  | 0.001 | 0.154  | 0.005***  | 0.001 | 0.148  |
| ses->유능감3  | 0.004*    | 0.002 | 0.049  | 0.004*    | 0.002 | 0.049  |
| 가족관계->교사관계 | 0.484***  | 0.047 | 0.227  | 0.483***  | 0.047 | 0.226  |
| 시민성3->학교활동 | 0.36***   | 0.064 | 0.123  | 0.089     | 0.088 | 0.022  |
| 가족관계->학교활동 | 0.177+    | 0.093 | 0.036  | 0.235*    | 0.094 | 0.048  |
| 가족관계->교우관계 | 0.388***  | 0.035 | 0.246  | 0.387***  | 0.035 | 0.245  |
| 유능감3->교우관계 | 0.204***  | 0.014 | 0.268  | 0.203***  | 0.014 | 0.266  |
| 유능감3->학교활동 | 0.098*    | 0.046 | 0.041  | 0.174***  | 0.047 | 0.073  |
| ses->학교활동  | -0.007+   | 0.004 | -0.038 | -0.004    | 0.004 | -0.021 |
| 가족관계->문화활동 | 0.075***  | 0.019 | 0.094  | 0.077***  | 0.019 | 0.096  |
| ses->문화 활동 | 0.006***  | 0.001 | 0.191  | 0.005***  | 0.001 | 0.185  |
| 학교활동->유능감6 | 0.026***  | 0.006 | 0.061  | 0.025***  | 0.006 | 0.06   |
| 가족관계->유능감6 | 0.495***  | 0.043 | 0.239  | 0.5***    | 0.043 | 0.242  |
| 유능감3->유능감6 | 0.391***  | 0.018 | 0.391  | 0.387***  | 0.018 | 0.389  |
| 교사관계->유능감6 | -0.102*** | 0.017 | -0.105 | -0.102*** | 0.017 | -0.105 |
| 교우관계->유능감6 | 0.328***  | 0.025 | 0.25   | 0.328***  | 0.025 | 0.251  |
| ses->봉사활동  | 0.438***  | 0.095 | 0.096  | 0.479***  | 0.092 | 0.106  |
| 가족관계->봉사활동 | 2.825     | 2.33  | 0.023  | 3.198     | 2.334 | 0.026  |
| 시민성3->봉사활동 | 8.312***  | 1.459 | 0.112  | 9.495***  | 1.983 | 0.095  |
| 문화활동->시민성6 | 0.105*    | 0.042 | 0.051  | 0.133***  | 0.034 | 0.094  |
| 가족관계->시민성6 | 0.3***    | 0.039 | 0.184  | 0.222***  | 0.029 | 0.196  |
| 학교활동->시민성6 | 0.029***  | 0.006 | 0.087  | 0.006     | 0.004 | 0.027  |
| ses->시민성6  | 0.002     | 0.001 | 0.03   | 0         | 0.001 | 0.004  |
| 교사관계->시민성6 | 0.014     | 0.015 | 0.018  | 0.025*    | 0.011 | 0.048  |
| 시민성3->시민성6 | 0.286***  | 0.024 | 0.294  | 0.254***  | 0.025 | 0.279  |
| 교우관계->시민성6 | 0.03      | 0.023 | 0.029  | 0.026     | 0.016 | 0.037  |
| 유능감6->시민성6 | 0.256***  | 0.019 | 0.325  | 0.182***  | 0.015 | 0.333  |
| 봉사활동->시민성6 | 0.001***  | 0     | 0.064  | 0.001***  | 0     | 0.073  |

※ 사회참여의식 모형에서는 중3때 사회참여의식, 공동체의식 모형에서는 중3때 공동체의식을 각각 투입함.

다음으로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변인들의 총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SES와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환경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가족관계는 직접적으로 시민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경험과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S 효과의 대부분은 가족관계나 문화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다른 경험의 축진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로 보이고, 가족관계의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도 크지만 직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학교활동과 교사·교우관계와 같은 학교경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교사관계의 경우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 과거 사회적 유능감(중3)을 통제하고도 현재 사회적 유능감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매우 컸는데, 특히, 이러한 유능감이 학교활동보다는 가족관계와 교우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민성에 대한 변인들의 표준화 직접·간접 및 총효과

|      | 사회참여의식 |       |        | 공동체의식 |       |        |
|------|--------|-------|--------|-------|-------|--------|
|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SES  | 0.156  | 0.03  | 0.126  | 0.118 | 0.004 | 0.114  |
| 가족관계 | 0.295  | 0.184 | 0.111  | 0.322 | 0.196 | 0.126  |
| 문화활동 | 0.051  | 0.051 | 0      | 0.094 | 0.094 | 0      |
| 교우관계 | 0.11   | 0.029 | 0.081  | 0.12  | 0.037 | 0.083  |
| 교사관계 | -0.016 | 0.018 | -0.034 | 0.013 | 0.048 | -0.035 |
| 학교활동 | 0.107  | 0.087 | 0.02   | 0.047 | 0.027 | 0.02   |
| 봉사활동 | 0.064  | 0.064 | 0      | 0.073 | 0.073 | 0      |
| 유능감3 | 0.161  | 0     | 0.161  | 0.165 | 0     | 0.165  |
| 시민성3 | 0.315  | 0.294 | 0.02   | 0.287 | 0.279 | 0.008  |
| 유능감6 | 0.325  | 0.325 | 0      | 0.333 | 0.333 | 0      |

## 2. 논의

전반적으로 주요한 경로에 대한 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모두 대해서 SES는 가족관계와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매개로 주로 간접적으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관계는 간접적 효과와 직접적 효과



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뜻하고 수용적인 부모일수록 자녀의 욕구에 잘 반응하고, 자녀의 선택을 장려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다양한 학교활동 참여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효능감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 효능감 외에도 가족내 관계에서 이타적인 행동방식과 책임감 등의 긍정적 가치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가족관계의 직접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교경험(교사·교우관계와 학교활동)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또는 직접적으로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식에 대해서는 학교활동의 직접적인 영향과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교사와 교우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학교활동과 교사관계는 직·간접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우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다. 긍정적인 교우관계나 학교활동의 경험은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지적·수용적 관계를 통해서 감정적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며, 이것이 유능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관계는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그 강도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우관계보다 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아마도 교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교 경험간의 매우 복잡하고 동적인 관계가 포착된 결과로 보인다. 가령, 사회적 유능감이 일부분 또래 관계 내에서 인기를 포착하는 것 같고, 흔히 ‘범생이’로 표현되는 공부 잘하고 비사교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긍정적인 교사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문제아’들은 반대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교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응적인 학생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이 좋은 관계로 지각하는 반면, 교사와의 좋은 관계가 유능감 형성에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교사관계 효과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배제한 직접효과는 이타심,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헌신, 상호의존성과 호혜성 등의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또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시민성 발달을 촉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시민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였다.

둘째, 가정환경이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발견하였다.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과정을 다룬 기존 문헌들에서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직접 효과만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SES와 가족관계와 같은 가정환경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도 문화활동이나 학교활동 참여, 사회적 유능감 등을 매개로 시민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효과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셋째, 본 분석에서는 변수간의 시차를 이용하여 인과적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였으며, 과거 시민성과 사회적 유능감 수준을 모형에 포함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과거 시민성을 통제하고도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시민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학교경험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가 의심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일부 학교경험이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 참여와 친밀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우관계가 시민성 발달에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명확해졌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와 같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치적 참여 외에도 봉사활동과 문화활동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회참여를 통해 참여의 규범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자극하는 경험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환경이 불리한 학생들

의 시민성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불리한 학생들의 비교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SES 수준이 높을수록 지지적·수용적 가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족관계는 청소년들의 시민성 형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이 불리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만으로 시민성 발달을 위해 학교활동의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말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한계는 무엇보다 학교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기존문헌들에서는 활동의 민주성이나 친구의 시민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학교경험의 다양한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유능감 외에 신뢰나 대인관계기술, 상호호혜성의 규범과 같이 학교경험이 시민성 발달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분석도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학교활동에 학생회와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교내외 동아리 활동이 섞여 있어서 개별 활동의 효과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개별 활동들은 시민성 형성에 다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측면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환 · 김영배 · 조문흙(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왕근(1995). 시민성의 두 측면. 사회와 교육, 제20권 제1호, pp. 61-72.
- 김원태(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권 제1호, pp. 49-88.
- 김태준 · 전인식 · 변종임 · 장혜승 · 반재천 · 조영하(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주 · 정영란(2008). 청소년 지도의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회 논문집. 제6권 제4호.
- 박가나(2001).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상탈 무폐 · 백영현(2003). 시티즌십이란 무엇인가. 시민과 세계, 제3호.
- 송현정(2003). 사회과교육의 목표로서 시민성의 의미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5권 제2호, pp. 45-70.
- 이용교 · 이중섭(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pp. 203-232.
- 천희완(1999). 고등학교 특별활동과 민주적 정치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2007). 한 · 일 시티즌십 비교: 시민의식의 공적 영역 지향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3호, pp. 163-202.
- 허인숙 · 이정현(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 443-472.
- Cunha, Heckman, Lochner, and Masterov(2006).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in Hanushek and Welch, eds., *Handbook of Economics of Education*, ch.12. Amsterdam: North-Holland.

- Flanagan, Bowes, Jonsson, Csapo, and Sheblanova(1998). Ties that bind: Correlates of Adolescents civic commitments in seven countri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4 No. 3, pp. 457-475.
- Fletcher, Elder, and Mekos(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0 No. 1, pp. 29-48.
- Glanville(1999). Political Socialization of selection? Adolescent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nd political activity in early adulthood.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0 No. 2, pp. 279-290.
- Hart, Atkins and Ford(1999). Urban America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moral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4 No. 3, pp. 513-530.
- Romig & Bakken(1992). Intimacy development in middle adolescence: Its relationship to gender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1, pp. 325-338.
- Wentzel & McNamara(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9 No. 1, pp. 114-125.
- Youniss, McLellan, Su & Yates(1999). The role of community service in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4 No. 2, pp. 248-261.
- Zaff & Michelsen(2001). Background for community level work on positive citizenship in adolescence: reviewing the literature on contributing factors, *Child Trend*.
- Zaff, Malanchuk and Eccles(2008). Predicting positive citizenship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effect of a civic contex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Vol. 12 No. 1, pp. 38-53.
- Zaff, Moore, Papillo and Williams(2003). Implications of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During Adolescence on Positive Outcom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8 No. 6, pp. 599-630.

## ABSTRACT

###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Experience on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during Adolescence

Kim, Wui-Jeo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experience on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on the part of adolesc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om an analysis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ies, the key pathways of citizenship formation were uncovered. First, family SES has an effect on the citizenship formation of the child, and it is in turn mediated by positive family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and volunteer work. Second,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s on the citizenship formation of the child impact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within school, and social efficacy. Third, school experiences such as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s within school improve the citizenship formation of the chil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nd this is mediated by social efficacy. The total effect size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school experiences. This study found that supportive and warm family relationships, intimate and reciprocal peer relationship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adolescents' citizenship formation and further suggests that social efficacy is one of the processes by which school experience may promote citizenship formation on the part of students.

**Key Words** : adolescence, citizenship, family background, school experie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투고일 : 12월 12일, 심사일 : 1월 30일, 심사완료일 : 1월 30일

---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